삼전닉스가 끌어올린 코스피… 코스닥은 순손실에 '휘청'

국내 상장사 3분기 실적 희비
유가증권시장 영업익 10.55%↑
삼전닉스가 전체의 75.17% 차지

코스닥 매출 9.01%·영업익 17.35%↓
순손실 1.3조 기록하며 적자 전환
흑자 기업 277곳 줄어 527곳 그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을 이끈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순이익 합계는 적자로 돌아섰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상장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에 따라 엇갈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반면 코스닥 기업들의 순이익 합계는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두 시장 모두 전분기보다 순이익 흑자 기업이 크게 줄었다. 합산 실적의 성장세와 개별 기업의 성적표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셈이다.

1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635곳의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253조784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55%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169조6093억원으로 30.41%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1254곳은 영업이익이 4조3897억원으로 17.35% 줄었고, 순이익은 2분기 5조3037억원 흑자에서 3분기 1조2875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코스피 영업익 75%가 삼전닉스 몫 … 흑자 기업↓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를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두 기업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합계 190조7743억원으로, 분석 대상 전체 영업이익의 75.17%를 차지했다. 매출액은 299조8687억원으로 전체의 28.02%였다. 두 기업을 제외한 633곳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41.90% 늘어난 63조9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순이익 흑자 기업은 2분기 520곳에서 3분기 373곳으로 147곳 줄었다.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89%에서 58.74%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185곳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38곳이었다.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액은 전분기보다 2.32%, 영업이익은 10.55% 늘었지만 순이익은 30.4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이 21.95%에서 23.72%로 높아지는 동안 순이익률은 23.31%에서 15.85%로 떨어졌다. 연결 기준 20개 업종 가운데 16개 업종의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줄었다.

올해 1~9월 누적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결 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638조2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4.39%, 순이익은 553조8332억원으로 272.65%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해도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3.94%, 94.86% 늘었다.

◆코스닥 361곳 적자 전환… 분기 순이익 합계도 줄어

코스닥은 3분기 매출액부터 전분기보다 9.01% 줄어든 89조808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35% 감소한 4조3897억원이었다. 순이익은 1조2875억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기업별로도 흑자 기업이 급감했다. 3분기 순이익 흑자 기업은 527곳으로 2분기 804곳보다 277곳 줄었다. 흑자 기업 비중은 64.11%에서 42.03%로 낮아졌고, 2분기 흑자였던 기업 가운데 361곳이 3분기 적자로 전환했다.

코스닥 역시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성장세를 보였다.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5.26% 증가한 272조7233억원, 영업이익은 49.59% 늘어난 13조8681억원이었다. 순이익도 47.74% 증가한 8조3602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누적 실적 개선에도 3분기 들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하고 순손실이 발생했다.

재무 상태는 두 시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9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코스피가 88.99%로 지난해 말보다 13.57%포인트 낮아진 반면, 코스닥은 124.04%로 10.15%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합산 실적 분석에서는 금융업과 분할·합병 법인 등 비교가 어려운 기업을 제외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닻 올리는 토큰증권 시장… 핵심 상품 발행은 입법에 '발목'

전자증권법 등 내년 2월 4일 시행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근거 미비
여야 발의 법안 2건 국회서 표류
금융당국, 연내 통과 위해 노력

내년 2월 토큰증권 시장 개막을 앞두고 시장에 올릴 상품의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부동산·특허·저작권처럼 금전이 아닌 자산을 담은 신탁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어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라며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고, 금융당국은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2월 열리지만, 그 시장의 중심이 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제 관건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찬성 210표, 반대 0표로 통과해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금전을 맡았을 때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을 담으려면 자산유동화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은 자산보유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상장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우량 자산을 갖고 있어도 요건을 갖춘 기관이 먼저 자산을 사들인 뒤 신탁하는 2단계 구조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이미 위축되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조각투자 발행 건수는 2024년 60건에서 지난해 50건, 올해 8월 중순까지 14건으로 줄었다. 발행금액도 2024년 272억원에서 올해 8월 중순까지 49억원에 그쳤다.

국회에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이강일 의원이 올해 9월 같은 취지로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실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신탁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토큰증권으로 여러 가치를 담아 사업을 하기 용이해진다"면서도 "동료 의원, 그중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사회에 적용되려면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업계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달 정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음 주에는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토큰증권 시장에 어떤 상품을 올릴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투자자가 상품을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초자산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지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이지스, 고액자산가 부동산 투자 확대

하나증권·딜로이트 안진과 맞손
대체투자부터 세무·재무 자문 협력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증권 본사에서 하나증권, 딜로이트 안진과 패밀리오피스·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제공해 온 부동산 등 대체투자 기회를 고액자산가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3사는 투자상품 구조화부터 자산 매입·매각, 세무·재무 자문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고객 기반을 활용해 투자·매각 수요를 발굴하고 금융구조 설계를 지원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등 대체자산 발굴과 실사, 펀드·부동산투자회사(리츠) 구조화 및 운용을 맡는다. 딜로이트 안진은 자산 취득·처분과 상속·증여 등에 필요한 세무·재무 자문을 담당한다.

앞서 패밀리오피스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실물자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선주 등 투자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 상품 공급을 넘어 고객 보유 자산의 매입·매각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조갑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이지스가 축적한 부동산 투자·운용 노하우에 하나증권의 고객 기반과 딜로이트 안진의 세무·재무 전문성을 더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 '사람 살리는 금융' 동참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8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신재욱·배광수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와 조병익 토스인슈어런스 대표를 지목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이 캠페인은 지난 7월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시작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투자의 힘을 모두에게'라는 가치 아래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업비트 '코인모으기' 누적 투자액 1조 돌파

출시 2년 만에 국내 거래소 최초 달성

업비트의 적립식 자동 매수 서비스 '코인모으기' 누적 투자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1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따르면 코인모으기 누적 투자액은 2024년 8월 출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두나무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자동 매수 서비스 가운데 처음으로 누적 투자액 1조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모으기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과 투자 금액, 매수 주기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매수하는 서비스다. 매수 시간은 하루 중 5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두나무가 공개한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자들은 월평균 68만원을 투자했다. 매수 주기는 '매일'이 42%로 가장 많았고, '매주' 40.4%, '매월' 17.5% 순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50.5%는 서비스를 90일 이상 이용했다. 가장 오래 이용한 고객의 이용 기간은 807일이었다. 연령별 비중은 30대가 30.2%, 40대가 27%, 50대 이상이 28.1%였다. 매수 건수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두나무는 정해진 금액을 나눠 매수하는 방식이 가격 변동에 따라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기적으로 매수하더라도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코인모으기는 투자자가 직접 설정한 금액과 주기에 따라 매수 시점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획에 맞춰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에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